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음 11월 1일)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중치료 전문 에인 앤웨 의위 원장 곽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대도약' 국책사업 24건

전북연구원과 발굴 포럼 국산 콩산업 융복합 등 발굴 사업규모는 3조971억원

전북도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 한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운영해 24 건의 국책사업을 발굴, 최종 확정했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전북연 구원은 지난 4월부터 도 실·국-전북 연구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분 '국책시업 발굴 포럼'을 구성해 분과별 워크숍, 전문가 자문 및 실무 진 협의를 거쳐 총 24건의 국책사업 을 발굴했다.

포럼 위원으로 국책연구원이나 중앙 부처 공무원, 대학교수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신규 아이템 최 초 제안자 실명제를 도입해 국책사업

발굴을 독려했다.

제 2423호

발굴된 5개 분과 국책사업은 ▲농업 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 발·SOC ▲산업경제 ▲환경복지 분야 에서 총 24개 시업으로 전체 시업규 모는 3조971억원이다.

구체적 사업 내용으로는 전북도만의 특색을 반영해 국산콩산업 융복합 기 반구축과 전라북도가 여행 체험의 1 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고 구려-후백제 역사벨트 조성과 아레나 급 이스포츠 경기장 조성, 그린수소 융복합 실증단지 조성 등이다.

송하진 도지시는 이날 보고에서 "대 도약 전북을 책임질 국책 사업이 발 굴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정책 과 부합성, 시업 추진 당위성, 시업 실현가능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 와 전략을 마련해 사업이 본격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상생·번영 공동체 구성··· 한-이세안 정상들 '맞손'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각 국가 정상들은 자유무역 을 비탕으로 한 '상생과 번영의 혁신공동체'를 구성하고 세계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사진 왼쪽부터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싸날 볼키아 브 루나이 국왕, 프락 손혼 캄보디아 외교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퉁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관련기사 3면〉

제너럴바이오, 남원공장 증설 65억원 투자 약정

남원시는 관내 송동면 신평리에 위 치한 제너럴바이오(주)가 남원 공장 에 65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약정하 고 26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차주하 전북도 투자금융과장이 참석 했으며, 제너럴바이오(주)는 기존공 장 내 65억원을 추가 투자해 2020년 하반기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제너럴바이오는 R&D 전문기업으로 2007년 완주에 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2015년 남원에 2공장을 투자한 바 있 으며, 최근까지 화장품, 바이오 세정 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등 꾸 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고, 이번 투자로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증대 와 20명 고용창출을 기대되고 있다.

제너럴바이오 서정훈 대표는 남원 공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에 나선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투자가 성공으로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 탁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구대책 내실화, 인구 유입 활성화'

전북도, 민관위원회 열고 브랜드 사업 등 인구정책 추진 '제2도민증' 발급 추진 사업 구상 논의로 '관심 집중'

전북도가 인구종합대책의 효율성 제 고와 내실화를 위해 인구 브랜드 사 업과 함께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열고 2019년 도 인구정책 중점 추진사항과 2020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는 최용범 전북 도 행정부지사와 이영환 전북대 교 수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 문·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위원회는 전북 인구정책 조례에 근거해 현재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날 논의된 2020년 인구정책 추진 방향 주요내용은 내년 인구정책 시행 계획 수립 및 브랜드 사업 선정에 따 른 실국 사업 추진 및 도민 홍보를 실시하며, 인구유입 방안으로 청년세 대, 출항인 및 공공기관 은퇴자들의 전북회귀 정책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

관광객, 교육 연수생 등 다양한 분 야의 체류인구 활성화 방안을 전북연 과 협업으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을 모색하며,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 인구 관련 주요사업에 대 한 객관적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운 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북도 에 직업,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머무는 사람에게 제2도민증 발급을 추진하는 사업 구상이 논의되어 위원 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제2도민증 제도는 거주인구 외에 체 류인구의 정책화 및 잠재 도민과의 정서적 연결로 우리 도에 대한 긍정 적 이미지를 부여하여 장래 인구로 유입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인구정책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

인구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 담부서 신설과 인구 종합대책 (2018~2022, 5년) 수립, 조례 제정 및 민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릴레이 민 · 관 실천협약 체결(3회), 정책아이 디어(표어) 공모, 찾아가는 맞춤형 인 구교육 및 인구의 날(7.11) 연계행사 개최로 도민의 인구 관심도를 높였

'인구정책 브랜드' 시업을 발굴・선 정ㆍ홍보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귀농귀촌・은 퇴자 등의 인구유입을 위한 제2고향 만들기 제안사업의 정책화 방안 마련 을 추진하고 있으며, 1시군 1특화 인 구정책 발굴・선정 및 정기적인 시군 소통회의(3회) 개최로 도와 시군이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적으 로 협력했다.

이종훈 대도약기획단장은 "올해 인 구정책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내년 인구정책 추진방향에 맞게 새로운 시책을 시행해 민관위원회와 함께 전북 미래발전에 근간이 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 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활성화

전북도, 워크숍 개최 신임 문화재연합회장에 왕기석 보유자 선출

전북도는 26일 도내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에 위치 한 상관 리조트에서 '전라북도 무 형문화재 전수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전북도 무형문화재연합회를 이끌어 왔던 임실필봉농악 양진성 회장의 이임 에 따라 차기 왕기석 회장을 연합 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왕기석 회장은 전북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로 시 립정읍사국악단장을 거쳐 현재 제7 대 국립민속국악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서 강의에서는 한국예술종합 학교 전지영 교수의 '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 전북도 무형문화재 위원회 송영국 위원의 '전라북도 무형유산 발전 방안을 위한 전승 교육 지도법'에 대한 교육이 이어

이후에는, 도내 무형문화재가 필 요로 하는 관련 법령과 제도들에 대한 교육과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 에 대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 유단체들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워크숍에서

"전북 무형문화재연합회와 적극적 으로 소통해 보다 나은 무형문화재 정책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멋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애향의 고장 전북의 위상을 새롭게 하겠다"고 /김진성 기자 밝혔다.

